



박소현의 섹.시.토크

친구 K의 남편이 메신저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부터 K에게 남편과의 사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마음이 적잖이 긴장되었다.

와이프 친구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속스럽지만, 와이프 친구로서가 아니라 섹스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구하며 서두를 댈다. 나는 그제야 이 부부에게도 말 못할 잠자리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알고 보니 K네 부부는 4년이 넘도록 섹스리스로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섹스를 한 것이 지난 6월 잠마기간 중 어느 날이었다고 하니 벌써 6달 전의 일이다.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일년에 많아봐야 서너 번에 불과한 잠자리를 가진다는 데 문제는 둘 다 원해서 섹스리스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편은 원하는데 K가 거부하고 있었다. 그나마 처음에는 이유라도 댔다. 안 씻어서 싫다, 온종일 애한테 서달려서 피곤하다, 잠이 쏟아진다 등등.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내 대놓고 '나는 섹스에 흥미가 없어. 하고 싶지 않아.'로 일관하기 시작했다.

"내가 남자로서 매력에 없나 싶어 운동도 시작해 보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썼지만 전혀 호응이 없더라구요. 내가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창때인데, 아내 입장만 헤아려 주기 너무 힘들거든요."

K의 남편은 열치 불구하고 내게 괴로움을 호소했다. 정말 마음같아서는 진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싶었다고.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한결을 자신의 욕구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K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 뿐인 것 같아 서둘러 날을 잡았다. 물론 남편이 이런 일로 상담을 요청했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 같아 모든 척하며 부부생활에 관해 운을 떼어 보았다.

"요즘 섹스리스 부부가 그렇게 많더라." "우리도 섹스리스야." K는 마치 '우리도 캠퍼스 커플이야.'라고 말하



듯이 자랑스럽게(?) 섹스리스임을 알려주었다. "그래? 너네는 얼마나 격조한데?" "일년에 서너 번 하나?" "신랑이 잠자리에 시큰둥해?" "신랑이야 하고 싶어서 못 살지. 그냥 내가 하기 싫어. 해도 별로 좋지 않고 피곤하기만 해."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나는 비난을 들볶았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참고 살아야 해?"

"그럼 어쩌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해? 정 괴로우면 자기 혼자서 해결하면 되잖아." 이기적인 배우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대답이었다. 이런 경우 설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위기가감이나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내가 할 말은 있다. "너 그거 알아? 부부생활도 결국은 직장생활하고 다르지 않아. 자기 싫은데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 일이 너무 좋아서

“밤하기 싫다고 애를 굶기면 애가 병드는 것처럼 너 하기 싫다고 네 남편을 굶기면 네 남편도 병들어”

즐거운 마음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 싫다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점심때 지나서 나가지는 않잖아. 회사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치도 보고 애도 쓰잖아.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야. 밤하기 싫다고 애를 굶기면 애가 병드는 것처럼 너 하기 싫다고 네 남편을 굶기면 네 남편도 병들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지금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었을지도 몰라." "그럼 내가 싫은 건 어떡하고?"

부부생활도 직장생활처럼

"정말 죽도록 하기 싫으면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너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회사라고 생각 해봐. 아내의 역할만큼 전문직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가짐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니?" 나의 열렬한 비난에 K는 약간 기가 죽은 듯 보였다. 그리고는 잠시 뒤 나를 힐끔 쳐다보며 의심스럽게 투로 말한다.

"너 우리 신랑에게 사주라도 받고 왔니? 갑자기 우리 부부생활에 왜 이렇게 열을 내?" "안타까워서 그래. 나야 세상 모든 부부들이 명랑한 잠자리를 즐기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내친김에 더 강하게 나갔다. "일단 오늘 밤에 꼭 하고자. 내일 전화해서 물어 불꺼야. 만약 안 했으면 한 달간 너랑 말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식의 협박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마는 나는 우울증이 극에 달한 K 남편을 떠올리며 한동안은 K네 부부의 부부생활 감시자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예 침대 머리맡에 써 봐. '부부생활도 직장 생활처럼'이라고. 너 직장 다닐 때 누구보다 착실한 직원이었잖아." 쓸어지는 잔소리에 넋더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는 K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힘이란 결국 약간의 '성 실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연애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84. 세계 각국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5일 광주에서 개막돼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빛 LIGH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을 담은 2천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①광주 디자인비엔날레 ②전주세계소리축제 ③부산국제영화제 ④대구 애니캐릭터 축제

첨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음 9월 2일 己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Each row includes the zodiac sign,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the corresponding hour of th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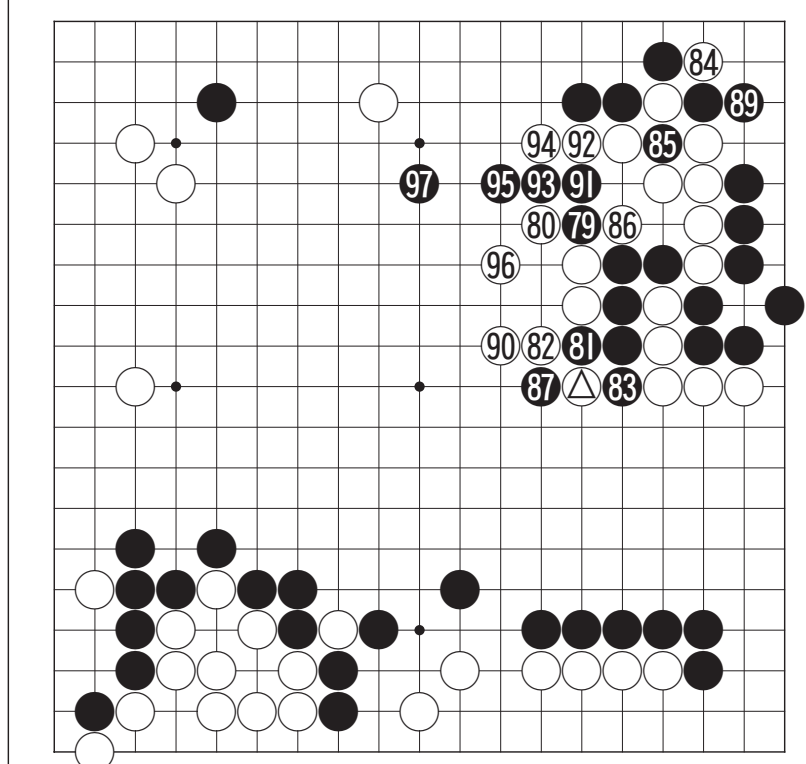
검색절정 키워드

박세리 성형사진 클릭클릭 샤를리즈 테론 '최고 섹시'

'박세리가 달라졌네' 프로 골퍼 박세리의 성형수술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박세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골프장에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찢려 경기에 지장이 있어 지난 2003년 말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박세리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렸다. 단풍절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인근 속

소, 맛집 등의 여행 정보를 비롯해 역, 버스 터미널, 해당 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도 많았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피하면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노후우도 파날라지고 있다. 영화배우 김보성이 결혼 10년만에 아내, 두 아들과 함께 광으로 여행을 떠나 아내를 위한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를 펼쳤다는 소식도 화제가 됐다. 또 김명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KBS

대하사극 '대조영'의 뒤를 이어 방송되는 '대왕 세종'에서 혁명가 역할을 맡아 연기자로 돌아온 것도 관심을 모았다. 이의 가수 겸 연기자 박지운(25)의 사진 에세이 출간 소식과 할리우드 스타 샤를리즈 테론(32·사진)이 미국 남성 월간지 '에스콰이어'가 선정한 '현존하는 최고 섹시 여성(sexiest woman alive)'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발상의 전환 필요했다 6보(79~97)

최강부 준결승 1국. 백 김희관 5단, 흑 선계성 6단. 공지에 물린 김희관 5단이 일단 백 △로 씌웠으나 동아줄이 아니라 거미줄을 친 것이다. 선계성 6단이 79로 짓하나 오자 사방의 허점이 노출돼 속수무책이다. 백 80이 또 상황을 악화시키고 만 대약수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수습책은 '참고도'의 백 1로 있는 수였다. 흑은 2에 이를 수밖에 없고

바둑소식

박영훈 GS칼텍스배 도전권 확보. 박영훈 9단이 11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GS칼텍스배 본선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조한승 9단을 182수만에 백 불계로 누르고 도전권을 따냈다. 박영훈 9단은 리그 초반 이창호 9단과 목진석 9단을 꺾고 승점을 따내며 일찌감치 선두를 달렸다. 그는 지난 8월 2일 이세돌 9단과의 리타이머치를 노리던 최철한 9단마저 누르고 전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도전권을 따낸 박영훈 9단은 오는 11월 3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1국을 시작으로 이세돌 9단과 5번기 승부를 벌인다. 두 기사간 상대전적에서는 이세돌 9단이 10승7패로 앞서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1010> Are there any Korean holidays in July? 한국에는 7월에 공휴일이 있습니까? A: Are there any Korean holiday in July? B: Yes, we have Constitution Day on July 17th. A: What do you do on that day? B: I usually go to the beach. A: That's nice. B: How about American? Do you have any holidays in July~? A: Yes, we have Independence Day. A: 한국에는 7월에 공휴일이 있나요? B: 예, 7월 7일이 제헌절입니다. A: 그 날 무엇을 하죠? B: 저는 대개 바닷가에 갑니다. A: 멋지군요. B: 미국은 어때요? 7월에 휴일이 있나요? A: 예,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 Korea has a lot of national holidays. = 한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10> つまみは何にする。 안주는 뭘로 할까? A: つまみは何にする。 B: 鳥(とり)のからあげとイカの姿焼(すがたや)き。 A: 私はツナサラダ。 B: とりあえず頼(たの)もうか。 A: 안주는 뭘로 할까? B: 닭튀김이랑 통오징어구이. A: 난 참치샐러드 B: 일단 시킬까. * つまみ: 집음-->つまみの(집을 것)를 생각한 표현으로 つまみ에서 파생된 말. 뜻은 손으로 집을 거리를 말함. * からあげ: てんぷら(튀김)와는 다르게 튀김옷을 입히지 않거나 밀가루가 아닌 다른 것을 살짝 입혀 튀겨낸 것.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t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900> 看看还需要什么 또 무엇이 필요한 지 봐봐 A: 我的电脑有问题, 能买一台新的吗? Wó de diànnǎo yǒu wèn tí, néng mǎi yí tái xīn de ma? 내 컴퓨터도 문제가 있어, 새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B: 어? A: 내 컴퓨터도 쓰거 불편하고, 내 컴퓨터도 좀 낡았어. B: 또 무엇이 필요한지 봐봐, 우리 함께 사려가자. 键盘 [jīyàn] 키보드 使 [shǐ] 쓰다, 사용하다 鼠标 [shǎobiào] 마우스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27> 讀書三到(독서삼도) 읽을 도, 책 서, 석 삼, 이를 도 독서삼도(讀書三到)란 책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집중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삼도(三到)란 심도(心到), 안도(眼到), 구도(口到)이다. '심도'는 마음을 책읽기에 집중하여 책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안도'는 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며 읽는 것이고, '구도'는 입으로 소리 내어 글을 읽어 답답함을 없애준다. 즉 책을 읽을 때는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라는 말이다. 다른 표현으로 '독서삼매(讀書三昧)'라고도 한다. 여기서 삼매(三昧)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모든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일상적 반응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삼매에 이르러면 앞에서 아담법석을 쳐도 모르는데, 삼도(三到)도 그런 경지이다. 유희의 수양법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독서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 책(經典)을 읽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오랫동안 감화(感化)시키는 것이 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교적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독서인(讀書人)' 또는 '유생(儒生)'이라고 하였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